

항일선열들의 영원한 웨침 -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 리동결동지들의 서거 70돐에 즈음하여

혁명의 삶이 그러도 아름답고 빛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가.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구호 문헌이 지금도 우리 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한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붙여지는 찬바람을 맞받아 헤쳐서 마두산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호 문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신념을 굳건히 간직할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바로 여기에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비껴있고 혁명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그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가 여럿이다.

얼마나 많은 항일의 투사들이 수령안에,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귀중한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고 신념의 인간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는 것인가.

죽자부마루의 혁명렬사들, 우리 혁명의 자랑스런 첫 세대로, 신념과 지조를 지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여객 싸운 투사들의 전영으로 피어선 항일혁명전사들이 불멸의 공적을 아로새긴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 리동결동지들의 열렬의 심장들도 이 영생의 언덕에서 세월과 동행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순애 무장을 들고 우리와 함께 험난한 항일혁명길을 걸은 사람들과 절대다수는 물론 신념도 강하고 의지도 강한 백혈병들의 투사들이었다. 그들은 최악의 역경에 처한 순간에도 혁명가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고 조국해방에 대한 신념을 더럽히지 않았다.》

주제 39(1950)년 여름 해방된 서울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먼저 서울서대문형무소부터 둘러시었다. 천지들과 전우들의 붉은 피가 진하게 스며들어있는 형무소를 보시는 순간 우리 수령님의 심증이 과연 어떠하시었을까.

어버리수령님께서서는 그대를 돌이켜보시며 바로 악몽같은 이 형무소에서 권영벽, 리제순, 리동결, 지태환을 비롯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괴박히 저항해나섰던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한층의 흠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폐말도 없는 무덤들을 찾을 길이 바이 없었지만 그들의 피와 숨결이 어려있는 형무소의 지붕과 담벽만이라도 보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해방이 되어 5년세월이 흘렀지만 옛 전우들의 조의방문조차 받아볼수 없었던 동지들의 영영앞에서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짐작지 못하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조국해방을 위한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 리동결동지들은 원수들에게 체포되었지만 조지 괴롭고 악몽에도 굴함없이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내고 조국해방을 눈앞에 둔 주제 34(1945)년 3월 10일 교수대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장렬한 최후를 마쳐 되었다.

공고한 기초우에 선 신념은 자기 충실하는 리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그 리념을 위해서라면 굽어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까지 되어있는 신념이다.

일제가 조작한 《해산사건》은 매개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신념과 의지의 강도를 검증하는 인대 시련이었다.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를 가르는 하나의 엄중한 검정기준이었다.

죽음을 백두산지구에 꾸러놓은 지하조직들을 다치는데도 파괴하고 혁명가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다.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동지들은 변절자들과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었지만 끝까지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주셨다.

그들은 나이로 볼 때 위대한 수령님보다 2~10년정도 이상이

였지만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운명의 어버이로, 위대한 스승으로 우러러모시고 받들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한생을 바치는 것을 자기들의 드림없는 인생관으로 삼았다.

나를 낳아준 조국은 어머니이고 혁명투쟁에서 나를 가르쳐준 길러준 사명판동지는 나의 스승이시며 어버이이다.

권영벽동지가 삶의 좌우명으로 간주하고있던 이 말은 투사들 모두가 심장속깊이 간직하고있던 혁명신조이기도 하였다.

주제 24(1935)년 3월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권영벽동지는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주력부대 선전과장직 임무를 수행하였다. 어느날엔가는 장백지구에서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사업을 추진하던 조국광복회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대한 임무를 받게 되었다.

권영벽동지는 어느 하루밤도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였다. 하루밤 사이에도 수령님의 지시를 결코 어그러뜨리지 않고 광복회 지회와 분회들을 새로 내고 지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장백현당위원회를 책임지고 맹활약을 하였다.

이름없는 산에서 야학선생과 촌장으로 있던 리제순동지에서서 혁명가로서의 남다른 품격과 자질, 재능을 보이고 그를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열렬한 애국자, 건철한 혁명투사로 키우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백두산정령장군을 처음 만나보신 리제순동지는 그때 벌써 수령님의 보충으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정치공작원으로 되었으며 수령님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혁명공대의 군복을 입어보았다. 리제순동지만 한사람의 수장권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에게도 강의를 담당하시었고 리동결동지를 비롯한 여러명의 유능한 강사들이 번갈아 출연하며 여러날동안이나 단독강습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도장이 새겨진 신일장을 품고 지하혁명활동을 한 정경관장이 리제순동지 하나였다는 사실도 그에 대한 수령님의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잘 말해준다. 절세의 위인의 그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리제순동지는 백두산터널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구축해놓았으며 조선인민혁명군과 국내혁명조직과의 연계를 지어주었다. 리제순동지는 군중을 조직에 결속시키고 유격대를 원호하기 위한 사업에 그들을 불러일으켜 수장점에 달하는 원호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보천보 전투의 전초선에서 그 승리를 앞둔이 지저분 정지공작원도 바로 리제순동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정치공작원의 임무를 받고 장백현 19구구에 파견된 지태환동지는 권영벽, 리제순동지들의 사업을 믿음직하게 뒷받침하면서 일제가 조작한 《해산사건》후 파괴된 혁명조직을 수습하기 위하여 사신을 헤쳐다.

《도청님! 1939년 불부터 정치공작소장을 책임지고 국내의 삼강, 연사구의 로동자, 농민들에서 활동한 리동결동지도 여러곳에 혁명조직을 내오기나 복구정비하여 백두산동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데 기여하였다.》

시련과 고난만이 혁명가의 신념을 검증할수 있다.

육중투쟁의 나날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 리동결동지들은 원수들을 견줄게 하는 수많은 인민의 일화들을 피와 목숨으로 새겼다.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평범한 날에는 누구나 혁명을 부르짖고 누구나 신념을 끝까지 운다. 하지만 무거운 쇠사슬이 서리서리 영진 침침한 감옥과 단두대의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한장치라고 할수 있다.

그 시험장에서 이들은 자기들의 빛나는 생애를 통하여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과 혁명가로서의 존엄을 검증받았다.

변절자의 밀고에 의하여 일제놈들에게 체포된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동지들이나 적들의 전두에서 중상을 입고 체포된 리동결동지나 초일계요령리들로부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수적고문을 당하였다. 그러나 육신을 짓밟는 가혹한 고문을 우당당히 견뎌내며 그들이 먼저 생각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죽어도 버리지 않으려는 의식 신념이었으며 혁명조직과 동지들의 운명이였다.

권영벽동지가 조국광복회의 주요 인물이라는것을 알게 된 일제교형자들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그를 굴복시키려고 미친듯이 날뛰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속에서 권영벽동지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한 한사람이라도 살려내어 조직을 지키고 동지들을 구원하는것이이라고 생각하였다.

권영벽동지는 리제순동지에게 《모든것을 내게 밀것!》이라고 적은 백골공지를 보냈다. 그때 리제순동지는 《우리는 일심동체!》라는 글을 써 보내었다. 서로 다른 방에 갇혀있고 그이상 더 죽지를 교환하지 못하였지만 권영벽동지와 리제순동지의 심장은 한마음한뜻으로 고통치고있었다.

《도청님! 백두산에 갇힌 일과 그후의 모든 일 내와 도청님과 장군님앞에 모든 일이나 도청님한테 내오기나 복구정비하여 백두산동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데 기여하였다.》

권영벽동지가 박인진도청에게 이렇게 말할 때 리제순동지도 모든것을 자신이 맡아안고 나갔다.

권영벽동지는 리제순동지들의 희생적인 구출작전에서 수많은 피격자들도 재판당에 끌려가거나 전두에서 풀려나갔거나 예상보다 피그나 가벼운 형을 마치고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

권영벽동지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웨쳤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조국강토에서 강도 일제를 내쫓고 우리 민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대전에 나선 조선의 애국투사들이며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누가 누구를 감히 재판하는가.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면 바로 내놈들이 아닌가. 나의 나라를 강점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남의 나라의 재물을 마음대로 도둑질해가는 내놈들이야말로 악독한 강도범들이고 살인범들이야. 역사가 공정한 심판을 내려 우리 민족의 수호자로 만들고 내놈들을 매장해버릴 날은 반드시 오고

야할것이다.》

리제순동지는 장중렬이 변절했다는것을 알게 되자 이것을 동지들에게 알리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데 피를 손에 묻힌 다음 천조막에 《장중렬 변절》이라고 쓴 다발을 고문실로 나갈 때 다른 감방에 넣어주었다. 그리하여 많은 동지들이 변절자의 정체를 제때에 알고 사선대행을 세우게 하였다.

리제순동지는 안해가 면회를 오면 태연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안해가 돌아갈 때에는 세계지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사형판결을 받은 몸으로 감옥안에서 그가 왜 세계지도를 요구했는가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대하여 이것은 그가 사형판결을 받은 다음에라도 절망이나 비판에 빠지지 않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 세계의 평평한 미래를 끝없이 그려보고있었다는 뜻있는 증거이라고, 그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미래에 산 사람이었고 죽음앞에서도 해방된 조국땅에 백화만발할 행복한 새 삶을 그려본 사람이었다고 회고하시었다.

《해산사건》으로 파괴된 조직을 수습하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일제놈들에게 체포된 지태환동지는 사형선고를 받고도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육중투쟁을 파감히 벌리면서 걸림장에서 풀려나갔거나 예상보다 피그나 가벼운 형을 마치고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

권영벽동지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웨쳤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조국강토에서 강도 일제를 내쫓고 우리 민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대전에 나선 조선의 애국투사들이며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누가 누구를 감히 재판하는가.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면 바로 내놈들이 아닌가. 나의 나라를 강점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남의 나라의 재물을 마음대로 도둑질해가는 내놈들이야말로 악독한 강도범들이고 살인범들이야. 역사가 공정한 심판을 내려 우리 민족의 수호자로 만들고 내놈들을 매장해버릴 날은 반드시 오고

40대의 한창나이였다.

비록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들은 갖지 않은 한생과 최후를 통하여 참된 혁명가의 삶의 본보기, 불굴의 신념에 대한 교과서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었다.

그때로부터 어언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 리동결동지들의 이름과 더불어 이름이 남긴 신념의 교과서는 세대들이어, 년대를 이어 또 하나의 혁명유산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제국주의와의 총포성능은 대결결과 함께 매 사람들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는 시련과 난관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 리동결동지들을 비롯한 항일의 투사들이 높이 추켜들었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 미레를 끝없이 그려보고있었다는 뜻있는 증거》라고, 그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미래에 산 사람이었고 죽음앞에서도 해방된 조국땅에 백화만발할 행복한 새 삶을 그려본 사람이었다고 회고하시었다.

《해산사건》으로 파괴된 조직을 수습하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일제놈들에게 체포된 지태환동지는 사형선고를 받고도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육중투쟁을 파감히 벌리면서 걸림장에서 풀려나갔거나 예상보다 피그나 가벼운 형을 마치고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

권영벽동지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웨쳤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조국강토에서 강도 일제를 내쫓고 우리 민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대전에 나선 조선의 애국투사들이며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누가 누구를 감히 재판하는가.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면 바로 내놈들이 아닌가. 나의 나라를 강점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남의 나라의 재물을 마음대로 도둑질해가는 내놈들이야말로 악독한 강도범들이고 살인범들이야. 역사가 공정한 심판을 내려 우리 민족의 수호자로 만들고 내놈들을 매장해버릴 날은 반드시 오고

오늘도 주작봉의 혁명렬사들을 찾는 사람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맞아 앞두고 희생된 권영벽, 리제순, 지태환, 리동결동지들의 반신상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살아있으면 개선의 용사가 되어 조국땅에 보무당당한 줄어섯을 그린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조선의 혁명가가 출신이 가장 치경성명을 다하지 않고 죽어있는 위아 옥중에서 용감히 싸웠다. 불의에 달라는 적들의 전두에서 싣한 부상을 입은채 놈들에게 체포된 그는 그후 6년이란 세월을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대로 혁명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며 굴함없는 투쟁을 벌리었다. 당시 이들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10대, 120대, 130대, 140대, 150대, 160대, 170대, 180대, 190대, 200대, 210대, 220대, 230대, 240대, 250대, 260대, 270대, 280대, 290대, 300대, 310대, 320대, 330대, 340대, 350대, 360대, 370대, 380대, 390대, 400대, 410대, 420대, 430대, 440대, 450대, 460대, 470대, 480대, 490대, 500대, 510대, 520대, 530대, 540대, 550대, 560대, 570대, 580대, 590대, 600대, 610대, 620대, 630대, 640대, 650대, 660대, 670대, 680대, 690대, 700대, 710대, 720대, 730대, 740대, 750대, 760대, 770대, 780대, 790대, 800대, 810대, 820대, 830대, 840대, 850대, 860대, 870대, 880대, 890대, 900대, 910대, 920대, 930대, 940대, 950대, 960대, 970대, 980대, 990대, 1000대, 1010대, 1020대, 1030대, 1040대, 1050대, 1060대, 1070대, 1080대, 1090대, 1100대, 1110대, 1120대, 1130대, 1140대, 1150대, 1160대, 1170대, 1180대, 1190대, 1200대, 1210대, 1220대, 1230대, 1240대, 1250대, 1260대, 1270대, 1280대, 1290대, 1300대, 1310대, 1320대, 1330대, 1340대, 1350대, 1360대, 1370대, 1380대, 1390대, 1400대, 1410대, 1420대, 1430대, 1440대, 1450대, 1460대, 1470대, 1480대, 1490대, 1500대, 1510대, 1520대, 1530대, 1540대, 1550대, 1560대, 1570대, 1580대, 1590대, 1600대, 1610대, 1620대, 1630대, 1640대, 1650대, 1660대, 1670대, 1680대, 1690대, 1700대, 1710대, 1720대, 1730대, 1740대, 1750대, 1760대, 1770대, 1780대, 1790대, 1800대, 1810대, 1820대, 1830대, 1840대, 1850대, 1860대, 1870대, 1880대, 1890대, 1900대, 1910대, 1920대, 1930대, 1940대, 1950대, 1960대, 1970대, 1980대, 1990대, 2000대, 2010대, 2020대, 2030대, 2040대, 2050대, 2060대, 2070대, 2080대, 2090대, 2100대, 2110대, 2120대, 2130대, 2140대, 2150대, 2160대, 2170대, 2180대, 2190대, 2200대, 2210대, 2220대, 2230대, 2240대, 2250대, 2260대, 2270대, 2280대, 2290대, 2300대, 2310대, 2320대, 2330대, 2340대, 2350대, 2360대, 2370대, 2380대, 2390대, 2400대, 2410대, 2420대, 2430대, 2440대, 2450대, 2460대, 2470대, 2480대, 2490대, 2500대, 2510대, 2520대, 2530대, 2540대, 2550대, 2560대, 2570대, 2580대, 2590대, 2600대, 2610대, 2620대, 2630대, 2640대, 2650대, 2660대, 2670대, 2680대, 2690대, 2700대, 2710대, 2720대, 2730대, 2740대, 2750대, 2760대, 2770대, 2780대, 2790대, 2800대, 2810대, 2820대, 2830대, 2840대, 2850대, 2860대, 2870대, 2880대, 2890대, 2900대, 2910대, 2920대, 2930대, 2940대, 2950대, 2960대, 2970대, 2980대, 2990대, 3000대, 3010대, 3020대, 3030대, 3040대, 3050대, 3060대, 3070대, 3080대, 3090대, 3100대, 3110대, 3120대, 3130대, 3140대, 3150대, 3160대, 3170대, 3180대, 3190대, 3200대, 3210대, 3220대, 3230대, 3240대, 3250대, 3260대, 3270대, 3280대, 3290대, 3300대, 3310대, 3320대, 3330대, 3340대, 3350대, 3360대, 3370대, 3380대, 3390대, 3400대, 3410대, 3420대, 3430대, 3440대, 3450대, 3460대, 3470대, 3480대, 3490대, 3500대, 3510대, 3520대, 3530대, 3540대, 3550대, 3560대, 3570대, 3580대, 3590대, 3600대, 3610대, 3620대, 3630대, 3640대, 3650대, 3660대, 3670대, 3680대, 3690대, 3700대, 3710대, 3720대, 3730대, 3740대, 3750대, 3760대, 3770대, 3780대, 3790대, 3800대, 3810대, 3820대, 3830대, 3840대, 3850대, 3860대, 3870대, 3880대, 3890대, 3900대, 3910대, 3920대, 3930대, 3940대, 3950대, 3960대, 3970대, 3980대, 3990대, 4000대, 4010대, 4020대, 4030대, 4040대, 4050대, 4060대, 4070대, 4080대, 4090대, 4100대, 4110대, 4120대, 4130대, 4140대, 4150대, 4160대, 4170대, 4180대, 4190대, 4200대, 4210대, 4220대, 4230대, 4240대, 4250대, 4260대, 4270대, 4280대, 4290대, 4300대, 4310대, 4320대, 4330대, 4340대, 4350대, 4360대, 4370대, 4380대, 4390대, 4400대, 4410대, 4420대, 4430대, 4440대, 4450대, 4460대, 4470대, 4480대, 4490대, 4500대, 4510대, 4520대, 4530대, 4540대, 4550대, 4560대, 4570대, 4580대, 4590대, 4600대, 4610대, 4620대, 4630대, 4640대, 4650대, 4660대, 4670대, 4680대, 4690대, 4700대, 4710대, 4720대, 4730대, 4740대, 4750대, 4760대, 4770대, 4780대, 4790대, 4800대, 4810대, 4820대, 4830대, 4840대, 4850대, 4860대, 4870대, 4880대, 4890대, 4900대, 4910대, 4920대, 4930대, 4940대, 4950대, 4960대, 4970대, 4980대, 4990대, 5000대, 5010대, 5020대, 5030대, 5040대, 5050대, 5060대, 5070대, 5080대, 5090대, 5100대, 5110대, 5120대, 5130대, 5140대, 5150대, 5160대, 5170대, 5180대, 5190대, 5200대, 5210대, 5220대, 5230대, 5240대, 5250대, 5260대, 5270대, 5280대, 5290대, 5300대, 5310대, 5320대, 5330대, 5340대, 5350대, 5360대, 5370대, 5380대, 5390대, 5400대, 5410대, 5420대, 5430대, 5440대, 5450대, 5460대, 5470대, 5480대, 5490대, 5500대, 5510대, 5520대, 5530대, 5540대, 5550대, 5560대, 5570대, 5580대, 5590대, 5600대, 5610대, 5620대, 5630대, 5640대, 5650대, 5660대, 5670대, 5680대, 5690대, 5700대, 5710대, 5720대, 5730대, 5740대, 5750대, 5760대, 5770대, 5780대, 5790대, 5800대, 5810대, 5820대, 5830대, 5840대, 5850대, 5860대, 5870대, 5880대, 5890대, 5900대, 5910대, 5920대, 5930대, 5940대, 5950대, 5960대, 5970대, 5980대, 5990대, 6000대, 6010대, 6020대, 6030대, 6040대, 6050대, 6060대, 6070대, 6080대, 6090대, 6100대, 6110대, 6120대, 6130대, 6140대, 6150대, 6160대, 6170대, 6180대, 6190대, 6200대, 6210대, 6220대, 6230대, 6240대, 6250대, 6260대, 6270대, 6280대, 6290대, 6300대, 6310대, 6320대, 6330대, 6340대, 6350대, 6360대, 6370대, 6380대, 6390대, 6400대, 6410대, 6420대, 6430대, 6440대, 6450대, 6460대, 6470대, 6480대, 6490대, 6500대, 6510대, 6520대, 6530대, 6540대, 6550대, 6560대, 6570대, 6580대, 6590대, 6600대, 6610대, 6620대, 6630대, 6640대, 6650대, 6660대, 6670대, 6680대, 6690대, 6700대, 6710대, 6720대, 6730대, 6740대, 6750대, 6760대, 6770대, 6780대, 6790대, 6800대, 6810대, 6820대, 6830대, 6840대, 6850대, 6860대, 6870대, 6880대, 6890대, 6900대, 6910대, 6920대, 6930대, 6940대, 6950대, 6960대, 6970대, 6980대, 6990대, 7000대, 7010대, 7020대, 7030대, 7040대, 7050대, 7060대, 7070대, 7080대, 7090대, 7100대, 7110대, 7120대, 7130대, 7140대, 7150대, 7160대, 7170대, 7180대, 7190대, 7200대, 7210대, 7220대, 7230대, 7240대, 7250대, 7260대, 7270대, 7280대, 7290대, 7300대, 7310대, 7320대, 7330대, 7340대, 7350대, 7360대, 7370대, 7380대, 7390대, 7400대, 7410대, 7420대, 7430대, 7440대, 7450대, 7460대, 7470대, 7480대, 7490대, 7500대, 7510대, 7520대, 7530대, 7540대, 7550대, 7560대, 7570대, 7580대, 7590대, 7600대, 7610대, 7620대, 7630대, 7640대, 7650대, 7660대, 7670대, 7680대, 7690대, 7700대, 7710대, 7720대, 7730대, 7740대, 7750대, 7760대, 7770대, 7780대, 7790대, 7800대, 7810대, 7820대, 7830대, 7840대, 7850대, 7860대, 7870대, 7880대, 7890대, 7900대, 7910대, 7920대, 7930대, 7940대, 7950대, 7960대, 7970대, 7980대, 7990대, 8000대, 8010대, 8020대, 8030대, 8040대, 8050대, 8060대, 8070대, 8080대, 8090대, 8100대, 8110대, 8120대, 8130대, 8140대, 8150대, 8160대, 8170대, 8180대, 8190대, 8200대, 8210대, 8220대, 8230대, 8240대, 8250대, 8260대, 8270대, 8280대, 8290대, 8300대, 8310대, 8320대, 8330대, 8340대, 8350대, 8360대, 8370대, 8380대, 8390대, 8400대, 8410대, 8420대, 8430대, 8440대, 8450대, 8460대, 8470대, 8480대, 8490대, 8500대, 8510대, 8520대, 8530대, 8540대, 8550대, 8560대, 8570대, 8580대, 8590대, 8600대, 8610대, 8620대, 8630대, 8640대, 8650대, 8660대, 8670대, 8680대, 8690대, 8700대, 8710대, 8720대, 8730대, 8740대, 8750대, 8760대, 8770대, 8780대, 8790대, 8800대, 8810대, 8820대, 8830대, 8840대, 8850대, 8860대, 8870대, 8880대, 8890대, 8900대, 8910대, 8920대, 8930대, 8940대, 8950대, 8960대, 8970대, 8980대, 8990대, 9000대, 9010대, 9020대, 9030대, 9040대, 9050대, 9060대, 9070대, 9080대, 9090대, 9100대, 9110대, 9120대, 9130대, 9140대, 9150대, 9160대, 9170대, 9180대, 9190대, 9200대, 9210대, 9220대, 9230대, 9240대, 9250대, 9260대, 9270대, 9280대, 9290대, 9300대, 9310대, 9320대, 9330대, 9340대, 9350대, 9360대, 9370대, 9380대, 9390대, 9400대, 9410대, 9420대, 9430대, 9440대, 9450대, 9460대, 9470대, 9480대, 9490대, 9500대, 9510대, 9520대, 9530대, 9540대, 9550대, 9560대, 9570대, 9580대, 9590대, 9600대, 9610대, 9620대, 9630대, 9640대, 9650대, 9660대, 9670대, 9680대, 9690대, 9700대, 9710대, 9720대, 9730대, 9740대, 9750대, 9760대, 9770대, 9780대, 9790대, 9800대, 9810대, 9820대, 9830대, 9840대, 9850대, 9860대, 9870대, 9880대, 9890대, 9900대, 9910대, 9920대, 9930대, 9940대, 9950대, 9960대, 9970대, 9980대, 9990대, 10000대, 10001대, 10002대, 10003대, 10004대, 10005대, 10006대, 10007대, 10008대, 10009대, 10010대, 10011대, 10012대, 10013대, 10014대, 10015대, 10016대, 10017대, 10018대, 10019대, 10020대, 10021대, 10022대, 10023대, 10024대, 10025대, 10026대, 10027대, 10028대, 10029대, 10030대, 10031대, 10032대, 10033대, 10034대, 10035대, 10036대, 10037대, 10038대, 10039대, 10040대, 10041대, 10042대

실화

어머니

한 보육원이 들려준 이야기

우리가 만난 김상순녀성은 17살 처녀 시절부터 42년간을 황해북도육아원에서 일해온 보육원이었다.

한직장에서 40여년동안 일하는것도 험치 않다. 하물며 탁아소 보육원도 아니고 부모없는 칠부지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원으로 바쳐온 42년 인생에 가슴속에 울로 묻어둔 사연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동정이나, 진정이나

그날은 중학교졸업을 앞둔 상순이도 어느 한 보육원에서 윤전사로 일하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육아원에 처음 가본 날이었다.

상순은 보는 사람이 없는가 하여 열면 주변부터 작살보았다. 그리고는 옷자락을 붙잡고 작은 손들을 애써 만져놓았다. 남자를 보면 무자정 아버지라고, 너자를 보면 덜어놓고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리는 원아들의 유년은 심리세계를 육아원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을 때 상순은 자신이 부모라고 애들에게 외사되었다.

육아원은 차장밖에 멀어졌지만 엄마라고 부르면서 치마자락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던 원아들의 모습이 그날 가슴을 허비였다. 목욕탕 차를 끌고있는 아버지에게 상순은 물었다.

「저 애들은 누가 키우나요?」
「나라에서 키우지,」
「저 애들을 키우는 보육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상순도 더 말을 안했다.

「내가 애들의 엄마는 되지 못해도 언니나 누나로는 될수 있지 않겠나?」
마침내 그는 상급학교에 가려면 생각을 바꾸어 보육원이 될 결심을 하였다. 그때는 「하나씩 보육원을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외친 천리마기수, 천리마작업반원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가 날마다 전제저 조국에 막대한 승결과 해준 위대한 시대였다.

보육원일은 각오했건보다 몇끝덜 더 힘들었다. 두시간에 한번씩 우유를 먹어야 하는 것 먹이들의 하루일과를 수첩에 적어놓고 땀이처럼 돌아도 눈과 손이 모자랐다. 한 애기를 돌이 달래면 또 다른 애기가 울고 애기를 업어 채우느라면 또 다른 애기가 보채고, 그 모든 아이들을 한번에 다 안아줄 수도 없었고...

그중에서도 한 애기는 젖병을 물려도 뱀이처럼 기를 쓰고 울었다. 업어주고 안아주는것은 백번이라도 할수 있던 것만 같았다.

매이르케 등은 굵고 얼얼한 주름은 깊었어도 눈빛만은 초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그윽하고 따뜻하며 사려깊었다. 정이 함뿍 어린 그 눈빛을 보니 어머니라는 부름이 저절로 나왔다.

「어머니, 보육원생활 42년에 어느날이 제일 잊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시절에 엄마를 잃은 그 어린애만은 어찌 할 도리가 없어 팍팍박이 되어 돌아가는데 한 보육원이 방에 들어섰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있는 처녀보육원에게 두손을 내밀었다.

「우린 불끄는 소말대가 아니라 불끄는 소방대라니까, 내 자식이라면 엉덩짝이라도 한대 쳐야박겠는데...」
한 아이의 환한 빨레감만도 한 소꿉이, 그런 아이가 수줍음면인 하루종일 쌓이는 빨레감은 함지로 파인 얼마나 될것인가. 상순의 품던 손은 솔수정처럼 두터워지고 늘 오목목여가게 저러었다.

「보육원일을 그만두는 나를 리해해주시오. 나도 아이들이 있고 가정도 있지 않나요. 상순도 살림이 어렵겠는데...」
가정이나, 육아원이나, 원아들이나, 내 자식이나.

가슴허비는 갈림길의 선택앞에 서있는 그의 눈앞에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남편의 모습이였다. 안해가 맡은 세상생이들을 위해 생물이든 문배낭을 지고 수년째를 뒤와 같이 육아원을 찾아오곤 하는 남편. 그가 언제까지 우스개소리처럼 하던 말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글쎄 저녁늦게 집에 들어가니 큰 녀석이 자루안에 조금 남았던 쌀을 한가마에 다 넣고 땀 물은 부어 죽반같은걸 만들어놓지 않았겠소. 동생이 배고파한다고 그 어떤 것이 해놓은 밥을 보니 육도 안 나가더구만.」
칠부지 두 아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던가.

「엄마직장 따라가서 하루밤만 같이 자자.」 하며 배를 쓰다가는 사람들이나 엄마 보고 이뻐웃마래! 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면 상순은 눈물을 썩어삼키며 애어린 자식들을 달래곤 했다.

인 그의 심적이고 정성이며 향심이었다. 등에 후처럼 불리고 업어키운 애들이 처음 터친 《엄마》라는 부름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기쁘게 들렸던지.

상순에게는 그때처럼 남편이 돌보아주지 않았다. 원아들에게 이뻐웃마래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식들에게는 엄마자식을 다하지 못해 가슴아파할 때면 상순은 얼마나 행복했었나.

그의 인생에도 기쁜 날들이 있었다. 제대되어 돌아온 아이들 어제날 아버지가 자주 그러했듯이 어머니와 함께 육아원 애로의 길에 나왔을 때 상순은 얼마나 행복했었나.

「엄마자식을 잘못해 미안하구나.」
남의 아이들을 한층 업어키우느라 변변히 등에 업어본적 없고 근대 나날 때조차 따끈한 밥 한끼 해주지 못했던 아이들이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집의 제일 큰 공주예요. 나도 이젠 당원이에요.」
상순의 눈물로는 행복의 뜨거운 눈물이 소리로 울려나왔다.

바로 그 아이들 고향을 하던 날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길의 얼굴을 처음 보듯이 상순의 얼굴도 처음 보았다고 한다. 한 동네에 살면서도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은 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다.

「아들이 모처럼 집에 오면 술잔을 받는 그의 눈가에 뜨거우것이 고여올랐다. 「아들딸 많이 낳고 오빠오빠 행복하거라. 그리고 가정은 건중히 여겨라.」
보육원어머니의 뜻깊은 말에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마와요. 어머니, 난 육아원 보육원어머니를 사랑해요.」
수십명의 세상생이들과 수많은 원아들을 사회주의대기정의 아들딸들로 튼튼히 키워낸 보육원의 헌신을 여겨 한가정의 어머니의 수고에 비할수 있을것인가. 존경과 감탄의 목소리들이 합쳐지는 가운데 요만한 박수가 터져올랐다.

김상순녀성의 42년 보육원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모범적인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이 평양에 모여왔다. 도안의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의 옷차림으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찰해주며 일꾼들은 감격에 젖어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동무들을 평양전학의 길에 불러주셨소.」
우리 도육아원의 대표들이 평양으로 간다고 그러도 기뻐하며 만수전덕덕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께 꼭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인사를 올려달라고 당부하던 원장과 보육원들의 정다운 얼굴들, 자기만 한 불원이 있을때 속속에게 찾아오던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며 이르는 못마다에서 최우선적으로 환대해주던 고마운

김상순녀성의 42년 보육원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모범적인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이 평양에 모여왔다. 도안의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의 옷차림으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찰해주며 일꾼들은 감격에 젖어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동무들을 평양전학의 길에 불러주셨소.」
우리 도육아원의 대표들이 평양으로 간다고 그러도 기뻐하며 만수전덕덕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께 꼭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인사를 올려달라고 당부하던 원장과 보육원들의 정다운 얼굴들, 자기만 한 불원이 있을때 속속에게 찾아오던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며 이르는 못마다에서 최우선적으로 환대해주던 고마운

상순에게는 그때처럼 남편이 돌보아주지 않았다. 원아들에게 이뻐웃마래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식들에게는 엄마자식을 다하지 못해 가슴아파할 때면 상순은 얼마나 행복했었나.

「엄마자식을 잘못해 미안하구나.」
남의 아이들을 한층 업어키우느라 변변히 등에 업어본적 없고 근대 나날 때조차 따끈한 밥 한끼 해주지 못했던 아이들이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집의 제일 큰 공주예요. 나도 이젠 당원이에요.」
상순의 눈물로는 행복의 뜨거운 눈물이 소리로 울려나왔다.

바로 그 아이들 고향을 하던 날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길의 얼굴을 처음 보듯이 상순의 얼굴도 처음 보았다고 한다. 한 동네에 살면서도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은 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다.

「아들이 모처럼 집에 오면 술잔을 받는 그의 눈가에 뜨거우것이 고여올랐다. 「아들딸 많이 낳고 오빠오빠 행복하거라. 그리고 가정은 건중히 여겨라.」
보육원어머니의 뜻깊은 말에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마와요. 어머니, 난 육아원 보육원어머니를 사랑해요.」
수십명의 세상생이들과 수많은 원아들을 사회주의대기정의 아들딸들로 튼튼히 키워낸 보육원의 헌신을 여겨 한가정의 어머니의 수고에 비할수 있을것인가. 존경과 감탄의 목소리들이 합쳐지는 가운데 요만한 박수가 터져올랐다.

김상순녀성의 42년 보육원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모범적인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이 평양에 모여왔다. 도안의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의 옷차림으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찰해주며 일꾼들은 감격에 젖어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동무들을 평양전학의 길에 불러주셨소.」
우리 도육아원의 대표들이 평양으로 간다고 그러도 기뻐하며 만수전덕덕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께 꼭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인사를 올려달라고 당부하던 원장과 보육원들의 정다운 얼굴들, 자기만 한 불원이 있을때 속속에게 찾아오던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며 이르는 못마다에서 최우선적으로 환대해주던 고마운

김상순녀성의 42년 보육원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모범적인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이 평양에 모여왔다. 도안의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의 옷차림으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찰해주며 일꾼들은 감격에 젖어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동무들을 평양전학의 길에 불러주셨소.」
우리 도육아원의 대표들이 평양으로 간다고 그러도 기뻐하며 만수전덕덕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께 꼭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인사를 올려달라고 당부하던 원장과 보육원들의 정다운 얼굴들, 자기만 한 불원이 있을때 속속에게 찾아오던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며 이르는 못마다에서 최우선적으로 환대해주던 고마운

평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남편도 따라 일어섰다.

「엄마자식을 잘못해 미안하구나.」
남의 아이들을 한층 업어키우느라 변변히 등에 업어본적 없고 근대 나날 때조차 따끈한 밥 한끼 해주지 못했던 아이들이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집의 제일 큰 공주예요. 나도 이젠 당원이에요.」
상순의 눈물로는 행복의 뜨거운 눈물이 소리로 울려나왔다.

바로 그 아이들 고향을 하던 날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길의 얼굴을 처음 보듯이 상순의 얼굴도 처음 보았다고 한다. 한 동네에 살면서도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은 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다.

「아들이 모처럼 집에 오면 술잔을 받는 그의 눈가에 뜨거우것이 고여올랐다. 「아들딸 많이 낳고 오빠오빠 행복하거라. 그리고 가정은 건중히 여겨라.」
보육원어머니의 뜻깊은 말에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마와요. 어머니, 난 육아원 보육원어머니를 사랑해요.」
수십명의 세상생이들과 수많은 원아들을 사회주의대기정의 아들딸들로 튼튼히 키워낸 보육원의 헌신을 여겨 한가정의 어머니의 수고에 비할수 있을것인가. 존경과 감탄의 목소리들이 합쳐지는 가운데 요만한 박수가 터져올랐다.

김상순녀성의 42년 보육원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모범적인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이 평양에 모여왔다. 도안의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의 옷차림으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찰해주며 일꾼들은 감격에 젖어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동무들을 평양전학의 길에 불러주셨소.」
우리 도육아원의 대표들이 평양으로 간다고 그러도 기뻐하며 만수전덕덕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께 꼭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인사를 올려달라고 당부하던 원장과 보육원들의 정다운 얼굴들, 자기만 한 불원이 있을때 속속에게 찾아오던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며 이르는 못마다에서 최우선적으로 환대해주던 고마운

김상순녀성의 42년 보육원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모범적인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이 평양에 모여왔다. 도안의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의 옷차림으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찰해주며 일꾼들은 감격에 젖어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동무들을 평양전학의 길에 불러주셨소.」
우리 도육아원의 대표들이 평양으로 간다고 그러도 기뻐하며 만수전덕덕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께 꼭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인사를 올려달라고 당부하던 원장과 보육원들의 정다운 얼굴들, 자기만 한 불원이 있을때 속속에게 찾아오던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며 이르는 못마다에서 최우선적으로 환대해주던 고마운

11월 16일, 그날은 어머니날이었다. 평양전학을 온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모범적인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선물이 전달되었다. 모두가 울었다. 생일마저 잊고 살아온 42년 보육원생활에 처음으로 가장 기쁘고 즐겁게 맞은 어머니날이 가져다준 행복이 상순에게는 정녕 꿈만 같았다.

「엄마! →」
상순은 눈물이 글썽해서 정다운 아이들을 한눈에 내려다보았다.
(이 정을 과연 어떻게 맺수 있단 말인가!)

모습들이 눈앞에 안겨왔다.
상순의 눈곱은 달아올랐다. 눈시울이 젖어 내다보는 차창에는 평양의 풍경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물고기들 가득 실은 차가 육아원마당에 들어서던 잊지 못할 그날의 풍경이 펼쳐졌다.

「...종업원들이 배는 미레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원아들을 잘 키우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는 제일 힘든 진아이키우는 때가 한시절이지만 보육원들은 그것이 괴로움은 한생의 직업이다. 탁아소 보육원들은 그 때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부모들의 인사를 받던 육아원들은 보육원은 결코 아닌, 남다른 수습생 애들을 거느린 한사람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이 배는 미레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원아들을 잘 키우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는 제일 힘든 진아이키우는 때가 한시절이지만 보육원들은 그것이 괴로움은 한생의 직업이다. 탁아소 보육원들은 그 때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부모들의 인사를 받던 육아원들은 보육원은 결코 아닌, 남다른 수습생 애들을 거느린 한사람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이 배는 미레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원아들을 잘 키우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는 제일 힘든 진아이키우는 때가 한시절이지만 보육원들은 그것이 괴로움은 한생의 직업이다. 탁아소 보육원들은 그 때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부모들의 인사를 받던 육아원들은 보육원은 결코 아닌, 남다른 수습생 애들을 거느린 한사람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이 배는 미레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원아들을 잘 키우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는 제일 힘든 진아이키우는 때가 한시절이지만 보육원들은 그것이 괴로움은 한생의 직업이다. 탁아소 보육원들은 그 때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부모들의 인사를 받던 육아원들은 보육원은 결코 아닌, 남다른 수습생 애들을 거느린 한사람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이 배는 미레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원아들을 잘 키우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는 제일 힘든 진아이키우는 때가 한시절이지만 보육원들은 그것이 괴로움은 한생의 직업이다. 탁아소 보육원들은 그 때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부모들의 인사를 받던 육아원들은 보육원은 결코 아닌, 남다른 수습생 애들을 거느린 한사람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이 배는 미레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원아들을 잘 키우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는 제일 힘든 진아이키우는 때가 한시절이지만 보육원들은 그것이 괴로움은 한생의 직업이다. 탁아소 보육원들은 그 때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부모들의 인사를 받던 육아원들은 보육원은 결코 아닌, 남다른 수습생 애들을 거느린 한사람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유원지충국돌격대의 여성소대원들

붉은기를 휘날리며 기세 높고 전투장으로 나가는 녀성들, 이들은 유원지충국돌격대의 녀성소대원들이다. 돌격대원들은 이들을 가리켜 돌격대의 꽃이라고 정답게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수리아를 방문하고있는 신홍철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8일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벨라루시 도착

리수웅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8일 벨라루시공화국 수도 민스크에 도착하였다.

전명연, 박정연에 단행주 기

전명연, 박정연에 단행주 기

일마진 강제사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부창동지에서 호소성이 강한 예술선동으로서 사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고는 자강도송배전부 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경태선동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의 정책적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밀쳐나서서 하는 매우 위대한 정치사업방법입니다.」

작업반별경쟁을 통해 얻은 실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호국투쟁에 예술선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
신계미루벌토지개량사업소에서 작업반별경쟁바람이 일었다. 그 경쟁바람속에 군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대중의 열의는 날마다 높아졌다.

대중의 심금을 들어잡는 애국의 호소

자강도송배전부 종업원들

소형발전소들을 찾고찾았으니 소와 노래가 여러 보통의 심장에서 울려나올수 있었다.
전기절약사업을 강화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이라는 신곡시대의 선정이 펼쳐질수 있었을을 감명깊게 노래하며 대대적인 대중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경태선동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의 정책적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밀쳐나서서 하는 매우 위대한 정치사업방법입니다.」
신계미루벌토지개량사업소에서 작업반별경쟁바람이 일었다. 그 경쟁바람속에 군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대중의 열의는 날마다 높아졌다.

작업반별경쟁을 통해 얻은 실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호국투쟁에 예술선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
신계미루벌토지개량사업소에서 작업반별경쟁바람이 일었다. 그 경쟁바람속에 군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대중의 열의는 날마다 높아졌다.

남조선 핵 전락 시킨 세계 최대의 핵 전쟁 고발한다

조선 평화 옹호전 국민족 위원회 백서

지금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여놓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수십년전부터 수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이며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전락시키고 항시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일삼아온 미국의 죄악을 낱알이 까맣히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 계획은 이미 조선전쟁을 도발한 1950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1950년 8월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하였으며 그해말에는 조중경계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의 수직스레 운 참패에서 용감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전후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반입을 정책화하고 각종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켰다.

1957년 6월 미국은 조선경계로부 터의 모든 무장장비반입을 일체 금지할데 대한 정전협정 제13항 기록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7월에는 남조선강 범지역의 핵무기장치를 선인하였으며 1958년 1월부터 《오네스트존》 핵미사일이 280mm원자로, 《B-1》 핵폭탄 등을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강범 미8군의 7사단을 원자전력을 갖춘 《펜토미》사단으로 개편한데 이어 《오네스트존》 핵미사일대대, 280mm원자로포대, 미공군 588전술유도탄대대를 통합한 미군 4유도탄사령부를 조직하였다.

1960년대에 《펜토미》원자사단을 보다 현대적인 《로이드》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마티돌》 및 《호크》유도탄, 핵지뢰 등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들을 들이밀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남조선의 안전보장은 미국의 안전보장과 직접 연결되어있다.》는 망발을 제쳐대신서 8m(인치)폭사포용 핵포탄, 《서전트》를 비롯한 각종 핵탄두, 《펜스》 미사일, 핵탄두용전투폭격기 등 핵력추진수단을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1974년 3월 당시 미록군참모총장은 미외회에서 《핵전쟁에서 사용될 《펜스》 미사일이 남조선에 배치되고있는중》이라고 공개하였으며 미국인들은 《워싱턴 포스트》도 남조선의 비무장지대관으로 핵무기를 계속 수송하고있다고 밝혔다.

1980년대 미국은 《힘의 우세》

를 떠들며 특수작전부대용핵배낭과 대포와 정, 도로 등을 파괴할수 있는 중형원자포탄, 특수원자포탄들을 미군기지에 배치하였고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던 전술핵무기까지 남조선에 들여다 전개하였다.

그리고 어느 해의군사기지에도 배치한것은 155mm파사포용핵포탄을 남조선강범 미군부대에 보급하였으며 지어 《20세기 아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중성자탄과 《머신 2》 중거리핵미사일도 끌어들이었다.

1987년에 전 미국부성판리는 《미국은 남조선에 《오네스트존》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배치하고있다.》고 고백하였다.

1980년대 중엽까지 미국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핵무기는 무려 1720여개나 되었다.

이것은 핵무기배치밀도에서 볼 때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것으로서 남조선평토의 100km²당 1.7개의 핵무기가 배치된것으로 된다.

남조선은 그야말로 세계최대의 핵확약고로 전변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체계적으로 반입하는 한편 도처에 핵저장고들을 만들어놓고 핵탄저장고 장비 보급을 맡은 부대까지 끌어들이며 의의 시각에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핵기지들은 대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의정부, 동두천, 춘천, 오산, 군산, 사천, 태백산, 팔공산, 도봉산 등 남조선전역에 그물망처럼 배치되었다.

당시 외신자료를 의하면 남조선에 배치된 핵미사일발사대는 230여개에 달하였으며 오산미공군기지는 핵폭탄 60개, 203mm핵포탄 40개, 155mm핵포탄 30개, 폭파용 핵지뢰 21개가 배치되어있었다.

전라북도 군산미공군기지는 36개의 지하핵탄저장고에 있었으며 거기에는 《F-4》, 《F-16》 전투폭격기, 옹핵포탄, 203mm, 155mm핵포탄, 《펜스》, 《오네스트존》 미사일 핵탄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서울과 신의주, 문산, 동두천, 춘천 등지에 지상발사용핵무기를 배치하고 지하핵무기저장고들을 만들어놓았으며 총칭 남도 공군에 《620사단》이라는 암호로 핵기지를 설치하였다.

미국의 핵전쟁책동은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할수 없다는 국제적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92년 7월 남조선으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기만적인 발표를 한 미제는 《NCDN정책》(핵무기의 존재에 대한 인정보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표명하며 핵무기를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2002년 미국이 작성한 《핵태세 검토보고서》에는 군산미공군기지에 주둔한 미8전투비행단소속 《F-16》 전투폭격기편대들이 《B-1》 핵폭탄으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005년 10월 9일 피괴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 핵수송 및 배치 현황도》에 의해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남조선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오산 등 주요도시들에 핵무기 기 비축되어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시기 군산미공군기지에 《목장》으로 불리우는 지하 8km의 핵무기저장고와 《원자탄사우나》라 하는 지하 5km의 핵무기저장고 등 274만발의 철화우라늄탄이 비축되어있다는 사실도 폭로되었다.

2010년 12월에 공개된 미군비밀 문서 《한국무기지원단-한국핵발전 표출절차》에는 2005년 4월 당시 춘천미공군기지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는 훈련을 하였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미국은 2006년 10월에 있는 38차 미군남조선연례안보회의에서 조선 반도유사시를 가상하여 남조선에 전술핵무기뿐 아니라 전략핵무기도 배치 하는것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때 따라 미국은 전략핵무력의 《3대 핵기둥》으로 불리우는 《B-52》, 《B-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로마호》 미사일 등 각종 핵전쟁장비를 해마다 남조선에 배치하는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인물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다고 하고있지만 지금도 핵무기가 존재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고있다.

이러한 역사적사실들은 조선반도 핵전쟁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이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2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 우리 공화국에 핵공포와 위협을 가하여왔다.

1950년 6월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우리 인민군들의 드센 반격으로 제련을 거듭하게 되자 핵무기를 사용할 용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국중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가》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미군중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반도에 원자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맥아더는 후날 자기의 회고록에 《나는 30-50개의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것이다. 그리고 동해에서 서해까지 60-120년동안 폭격이 유지되는 방사성고갈드를 뿌렸을것이다. 나의 계획은 완벽했다.》고 썼다.

미록군성 작전연구실소속 관계자들은 전장을 직접 돌아보고 미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원자탄탄사우의 가능성을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미국중군사령부에 제출하였다.

미제는 지어 《조선전쟁은 원자탄탄성능을 검증하는 좋은 실험장이 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원자탄탄사우를 위한 특별작전연구군을 조직하고 남조선에서 《허드슨 하버》라는

명칭으로 핵폭탄투하의 훈련을 감행하였다.

미국원자력위원회는 조선전쟁에서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1952년경 지 미국 유라주의 핵시험장에서 무려 65차례나 야전실험을 진행하였다.

1952년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원자탄사우나》라 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해 5월 《달라로 제안한다》 조선선에서 상용무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다 원자탄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의 《유익성》에 대해 떠벌였다.

한편 1953년 1월 미합중참모본부의 장로는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가 조선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요원에 개성지역에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합중참모본부는 1953년 5월 정전협정체결이 실패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선의 상황과 관련한 작전과정》이라는 극비보고서까지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저들의 수직스레 운 참패로 되자 그것들 만 조 회해보려고 우리에 대한 핵공포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1953년 12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영국수상 처칠과의 회담에서 《조선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할것》이라고 하면서 의와 관련한 제안을 유엔총회에 정식 제기하였다고 떠벌였으며 1955년 3월 미국 부대통령 니슨은 조선에서 쓸 핵무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제쳐냈다.

1954년 미제는 국무성,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국, 육, 해, 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유사시에 핵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이 1968년 무장간첩선 《푸에르토리코 호사건과 1969년 《BC-121》 대항간첩비행기 사건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고 1976년 판문점회담 핵무기를 담대한 전략폭격기편대가 비무장지대관까지 날려들어 세계를 핵공포에 빠지게 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방성은 《전략폭격기가 한달에 한두번 남조선상공에서도 폭격비행을 계속할것》이라고 떠벌였으며 1978년 《타임 스피리트》합과 《B-52》를 조선에서 적도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투하연습을 벌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오바마까지 나서서 《북포괴》 폭언을 마구 뱉어왔는가 하면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며 편향집중훈련에 광분하고 핵전쟁준비단순용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으면서 년초부터 전체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해나갔다.

이러한 핵전쟁광산자, 극악한 핵행위 《키 리졸브》, 《독수리》를 떠벌어대는 것(가) 《워워워》를 떠벌어대는 것이야말로 괴뢰정치와 철면피의 극지가 아닐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미국내에서까지 《핵억제력을 구축해놓는것도 없고 동맹국의 핵을 배치해놓는것도 없는데 썩은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1952년경 지 미국 유라주의 핵시험장에서 무려 65차례나 야전실험을 진행하였다.

1952년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원자탄사우나》라 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해 5월 《달라로 제안한다》 조선선에서 상용무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다 원자탄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의 《유익성》에 대해 떠벌였다.

한편 1953년 1월 미합중참모본부의 장로는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가 조선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요원에 개성지역에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합중참모본부는 1953년 5월 정전협정체결이 실패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선의 상황과 관련한 작전과정》이라는 극비보고서까지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저들의 수직스레 운 참패로 되자 그것들 만 조 회해보려고 우리에 대한 핵공포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1953년 12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영국수상 처칠과의 회담에서 《조선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할것》이라고 하면서 의와 관련한 제안을 유엔총회에 정식 제기하였다고 떠벌였으며 1955년 3월 미국 부대통령 니슨은 조선에서 쓸 핵무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제쳐냈다.

1954년 미제는 국무성,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국, 육, 해, 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유사시에 핵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이 1968년 무장간첩선 《푸에르토리코 호사건과 1969년 《BC-121》 대항간첩비행기 사건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고 1976년 판문점회담 핵무기를 담대한 전략폭격기편대가 비무장지대관까지 날려들어 세계를 핵공포에 빠지게 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방성은 《전략폭격기가 한달에 한두번 남조선상공에서도 폭격비행을 계속할것》이라고 떠벌였으며 1978년 《타임 스피리트》합과 《B-52》를 조선에서 적도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투하연습을 벌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오바마까지 나서서 《북포괴》 폭언을 마구 뱉어왔는가 하면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며 편향집중훈련에 광분하고 핵전쟁준비단순용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으면서 년초부터 전체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해나갔다.

이러한 핵전쟁광산자, 극악한 핵행위 《키 리졸브》, 《독수리》를 떠벌어대는 것(가) 《워워워》를 떠벌어대는 것이야말로 괴뢰정치와 철면피의 극지가 아닐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미국내에서까지 《핵억제력을 구축해놓는것도 없고 동맹국의 핵을 배치해놓는것도 없는데 썩은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1952년경 지 미국 유라주의 핵시험장에서 무려 65차례나 야전실험을 진행하였다.

1952년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원자탄사우나》라 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해 5월 《달라로 제안한다》 조선선에서 상용무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다 원자탄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의 《유익성》에 대해 떠벌였다.

한편 1953년 1월 미합중참모본부의 장로는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가 조선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요원에 개성지역에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합중참모본부는 1953년 5월 정전협정체결이 실패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선의 상황과 관련한 작전과정》이라는 극비보고서까지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저들의 수직스레 운 참패로 되자 그것들 만 조 회해보려고 우리에 대한 핵공포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1953년 12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영국수상 처칠과의 회담에서 《조선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할것》이라고 하면서 의와 관련한 제안을 유엔총회에 정식 제기하였다고 떠벌였으며 1955년 3월 미국 부대통령 니슨은 조선에서 쓸 핵무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제쳐냈다.

1954년 미제는 국무성,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국, 육, 해, 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유사시에 핵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이 1968년 무장간첩선 《푸에르토리코 호사건과 1969년 《BC-121》 대항간첩비행기 사건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고 1976년 판문점회담 핵무기를 담대한 전략폭격기편대가 비무장지대관까지 날려들어 세계를 핵공포에 빠지게 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방성은 《전략폭격기가 한달에 한두번 남조선상공에서도 폭격비행을 계속할것》이라고 떠벌였으며 1978년 《타임 스피리트》합과 《B-52》를 조선에서 적도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투하연습을 벌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오바마까지 나서서 《북포괴》 폭언을 마구 뱉어왔는가 하면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며 편향집중훈련에 광분하고 핵전쟁준비단순용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으면서 년초부터 전체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해나갔다.

이러한 핵전쟁광산자, 극악한 핵행위 《키 리졸브》, 《독수리》를 떠벌어대는 것(가) 《워워워》를 떠벌어대는 것이야말로 괴뢰정치와 철면피의 극지가 아닐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미국내에서까지 《핵억제력을 구축해놓는것도 없고 동맹국의 핵을 배치해놓는것도 없는데 썩은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1952년경 지 미국 유라주의 핵시험장에서 무려 65차례나 야전실험을 진행하였다.

1952년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원자탄사우나》라 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해 5월 《달라로 제안한다》 조선선에서 상용무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다 원자탄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의 《유익성》에 대해 떠벌였다.

한편 1953년 1월 미합중참모본부의 장로는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가 조선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요원에 개성지역에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합중참모본부는 1953년 5월 정전협정체결이 실패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선의 상황과 관련한 작전과정》이라는 극비보고서까지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저들의 수직스레 운 참패로 되자 그것들 만 조 회해보려고 우리에 대한 핵공포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1953년 12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영국수상 처칠과의 회담에서 《조선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할것》이라고 하면서 의와 관련한 제안을 유엔총회에 정식 제기하였다고 떠벌였으며 1955년 3월 미국 부대통령 니슨은 조선에서 쓸 핵무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제쳐냈다.

1954년 미제는 국무성,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국, 육, 해, 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유사시에 핵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이 1968년 무장간첩선 《푸에르토리코 호사건과 1969년 《BC-121》 대항간첩비행기 사건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고 1976년 판문점회담 핵무기를 담대한 전략폭격기편대가 비무장지대관까지 날려들어 세계를 핵공포에 빠지게 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방성은 《전략폭격기가 한달에 한두번 남조선상공에서도 폭격비행을 계속할것》이라고 떠벌였으며 1978년 《타임 스피리트》합과 《B-52》를 조선에서 적도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투하연습을 벌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오바마까지 나서서 《북포괴》 폭언을 마구 뱉어왔는가 하면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며 편향집중훈련에 광분하고 핵전쟁준비단순용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으면서 년초부터 전체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해나갔다.

이러한 핵전쟁광산자, 극악한 핵행위 《키 리졸브》, 《독수리》를 떠벌어대는 것(가) 《워워워》를 떠벌어대는 것이야말로 괴뢰정치와 철면피의 극지가 아닐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미국내에서까지 《핵억제력을 구축해놓는것도 없고 동맹국의 핵을 배치해놓는것도 없는데 썩은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1952년경 지 미국 유라주의 핵시험장에서 무려 65차례나 야전실험을 진행하였다.

1952년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원자탄사우나》라 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해 5월 《달라로 제안한다》 조선선에서 상용무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다 원자탄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의 《유익성》에 대해 떠벌였다.

한편 1953년 1월 미합중참모본부의 장로는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가 조선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요원에 개성지역에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합중참모본부는 1953년 5월 정전협정체결이 실패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선의 상황과 관련한 작전과정》이라는 극비보고서까지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저들의 수직스레 운 참패로 되자 그것들 만 조 회해보려고 우리에 대한 핵공포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1953년 12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영국수상 처칠과의 회담에서 《조선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할것》이라고 하면서 의와 관련한 제안을 유엔총회에 정식 제기하였다고 떠벌였으며 1955년 3월 미국 부대통령 니슨은 조선에서 쓸 핵무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제쳐냈다.

1954년 미제는 국무성,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국, 육, 해, 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유사시에 핵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이 1968년 무장간첩선 《푸에르토리코 호사건과 1969년 《BC-121》 대항간첩비행기 사건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고 1976년 판문점회담 핵무기를 담대한 전략폭격기편대가 비무장지대관까지 날려들어 세계를 핵공포에 빠지게 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방성은 《전략폭격기가 한달에 한두번 남조선상공에서도 폭격비행을 계속할것》이라고 떠벌였으며 1978년 《타임 스피리트》합과 《B-52》를 조선에서 적도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투하연습을 벌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오바마까지 나서서 《북포괴》 폭언을 마구 뱉어왔는가 하면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며 편향집중훈련에 광분하고 핵전쟁준비단순용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으면서 년초부터 전체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해나갔다.

이러한 핵전쟁광산자, 극악한 핵행위 《키 리졸브》, 《독수리》를 떠벌어대는 것(가) 《워워워》를 떠벌어대는 것이야말로 괴뢰정치와 철면피의 극지가 아닐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미국내에서까지 《핵억제력을 구축해놓는것도 없고 동맹국의 핵을 배치해놓는것도 없는데 썩은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1952년경 지 미국 유라주의 핵시험장에서 무려 65차례나 야전실험을 진행하였다.

1952년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원자탄사우나》라 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해 5월 《달라로 제안한다》 조선선에서 상용무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다 원자탄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의 《유익성》에 대해 떠벌였다.

한편 1953년 1월 미합중참모본부의 장로는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가 조선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요원에 개성지역에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합중참모본부는 1953년 5월 정전협정체결이 실패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선의 상황과 관련한 작전과정》이라는 극비보고서까지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저들의 수직스레 운 참패로 되자 그것들 만 조 회해보려고 우리에 대한 핵공포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1953년 12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영국수상 처칠과의 회담에서 《조선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할것》이라고 하면서 의와 관련한 제안을 유엔총회에 정식 제기하였다고 떠벌였으며 1955년 3월 미국 부대통령 니슨은 조선에서 쓸 핵무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제쳐냈다.

1954년 미제는 국무성,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국, 육, 해, 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유사시에 핵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이 1968년 무장간첩선 《푸에르토리코 호사건과 1969년 《BC-121》 대항간첩비행기 사건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고 1976년 판문점회담 핵무기를 담대한 전략폭격기편대가 비무장지대관까지 날려들어 세계를 핵공포에 빠지게 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방성은 《전략폭격기가 한달에 한두번 남조선상공에서도 폭격비행을 계속할것》이라고 떠벌였으며 1978년 《타임 스피리트》합과 《B-52》를 조선에서 적도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투하연습을 벌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오바마까지 나서서 《북포괴》 폭언을 마구 뱉어왔는가 하면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며 편향집중훈련에 광분하고 핵전쟁준비단순용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으면서 년초부터 전체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해나갔다.

이러한 핵전쟁광산자, 극악한 핵행위 《키 리졸브》, 《독수리》를 떠벌어대는 것(가) 《워워워》를 떠벌어대는 것이야말로 괴뢰정치와 철면피의 극지가 아닐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미국내에서까지 《핵억제력을 구축해놓는것도 없고 동맹국의 핵을 배치해놓는것도 없는데 썩은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1952년경 지 미국 유라주의 핵시험장에서 무려 65차례나 야전실험을 진행하였다.

1952년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원자탄사우나》라 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해 5월 《달라로 제안한다》 조선선에서 상용무기를 계속 사용하기로 다 원자탄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의 《유익성》에 대해 떠벌였다.

한편 1953년 1월 미합중참모본부의 장로는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가 조선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요원에 개성지역에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합중참모본부는 1953년 5월 정전협정체결이 실패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조선의 상황과 관련한 작전과정》이라는 극비보고서까지 만들어놓았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저들의 수직스레 운 참패로 되자 그것들 만 조 회해보려고 우리에 대한 핵공포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1953년 12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영국수상 처칠과의 회담에서 《조선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할것》이라고 하면서 의와 관련한 제안을 유엔총회에 정식 제기하였다고 떠벌였으며 1955년 3월 미국 부대통령 니슨은 조선에서 쓸 핵무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제쳐냈다.

1954년 미제는 국무성,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국, 육, 해, 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유사시에 핵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